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정답

| | | | | | | | | | |
|----|---|----|---|----|---|----|---|----|---|
| 1 | ① | 2 | ② | 3 | ④ | 4 | ⑤ | 5 | ① |
| 6 | ③ | 7 | ④ | 8 | ① | 9 | ② | 10 | ③ |
| 11 | ④ | 12 | ④ | 13 | ⑤ | 14 | ④ | 15 | ⑤ |
| 16 | ⑤ | 17 | ④ | 18 | ② | 19 | ② | 20 | ③ |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앎이 곧 덕이라고 보고 덕을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성찰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노자와 장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노자는 무위(無爲)의 삶을 위해 무지(無知),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자는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만물의 본래 모습을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퀴나스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영원법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연법이 인간의 본성에 반영되어 있는 영원법으로서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자신이 수행을 통해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사성제(四聖諦)라고 한다. 또한 그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스피노자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피노자, 을은 사르트르이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은 유일한 실체로서 자기 원인으로 존재하며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간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보고, 사단은 칠정 중 선한 부분과 구분되는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오직 기만 발할 수 있다고 보고, 사단은 칠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감정으로서 칠정 중 선한 부분을 지칭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7. [출제의도] 흄스와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흄스, 을은 루소이다. 흄스는 사회 계약의 주요 목적을 개인의 생명 보존에 두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생명권과 같은 권리는 양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 전부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국가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흄과 듀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듀이다. 흄은 인간이 공감 능력을 통해 자기 이익과 무관한 타인의 행복에 대해서도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적 지식이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 또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준칙들 중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준칙만이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사상가는 공자이다. 공자는 통치자가 법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형벌을 면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도덕과 예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동학사상과 위정척사 사상 비교하기

갑은 동학사상가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이다. 최제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에 서로를 한울님 대하듯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항로는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衛正], 서양의 문물은 배척해야[斥邪]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비롤리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공화주의자 비롤리이다. 비롤리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즉 자의적인 권력에 의한 지배가 없는 자유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법의 힘이 다수자의 힘보다 강할 때 자유가 실현될 수 있으며, 자유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특권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인간이 타고난 성정을 따르면 다툼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僞]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스토아학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토아학과 사상가 에픽테토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에픽테토스는 마음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향유하는 사람만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현존하는 악은 신의 본성에 있는 결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에피쿠로스, 벤담, 밀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벤담, 병은 밀이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벤담은 도덕의 목적을 사회적 쾌락의 증진이라고 보고 유용성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쾌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중 하나를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보다 질 높은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 벤담, 밀은 모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하늘이 인간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를 부여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스미스와 케인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스미스, 을은 케인스이다. 스미스는 국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기개와 정념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좋음 그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는 하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현상계의 좋은 것들은 여럿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적절한 중간 상태라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기질지성은 이(理)와 기(氣)를 함께 가리켜 말한 것이고, 본연지성은 이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과 별개인 이치도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모어와 마르크스의 이상 사회 비교하기

갑은 모어, 을은 마르크스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되고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자유로운 노동을 통해 누구나 전면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다.